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다윗왕
(2부)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각색: Ruth Klassen
번역: BibleTime.or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201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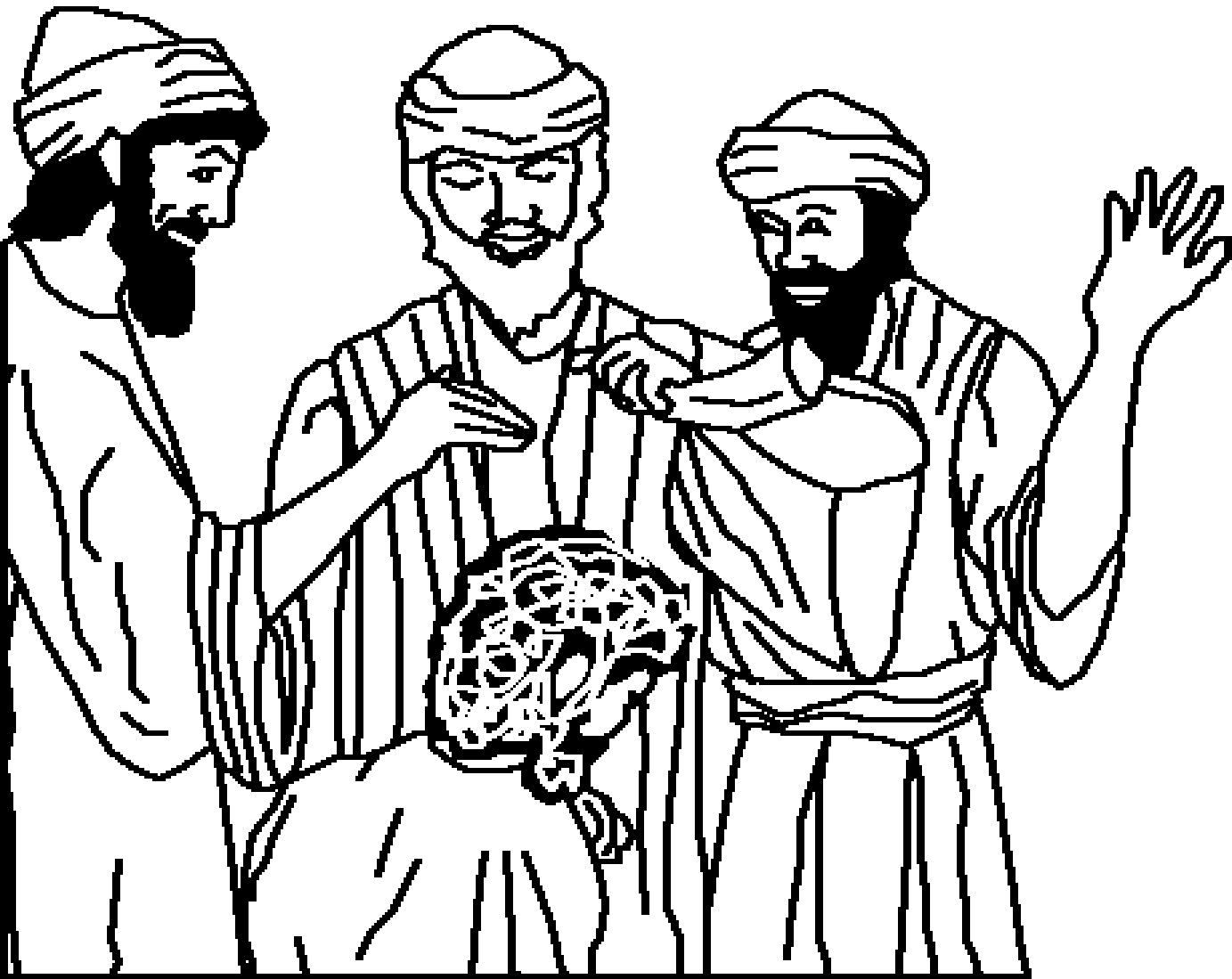
다윗은 서부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유대의 왕이었다.
그러나 그 외의 이스라엘
지역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전쟁은
7년간 격렬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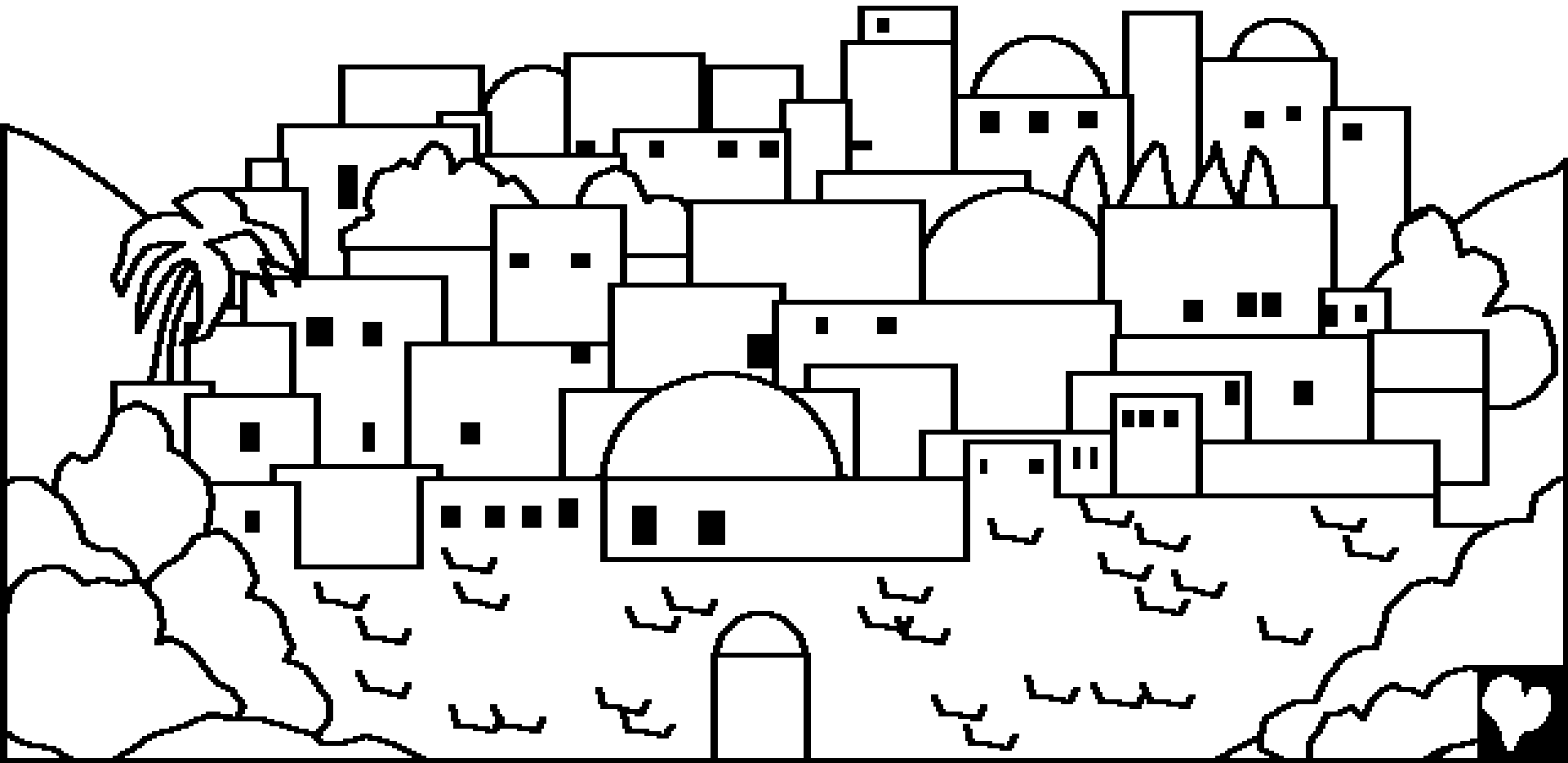
결국 이스보셋 왕은 자신의 두 병사에 의해 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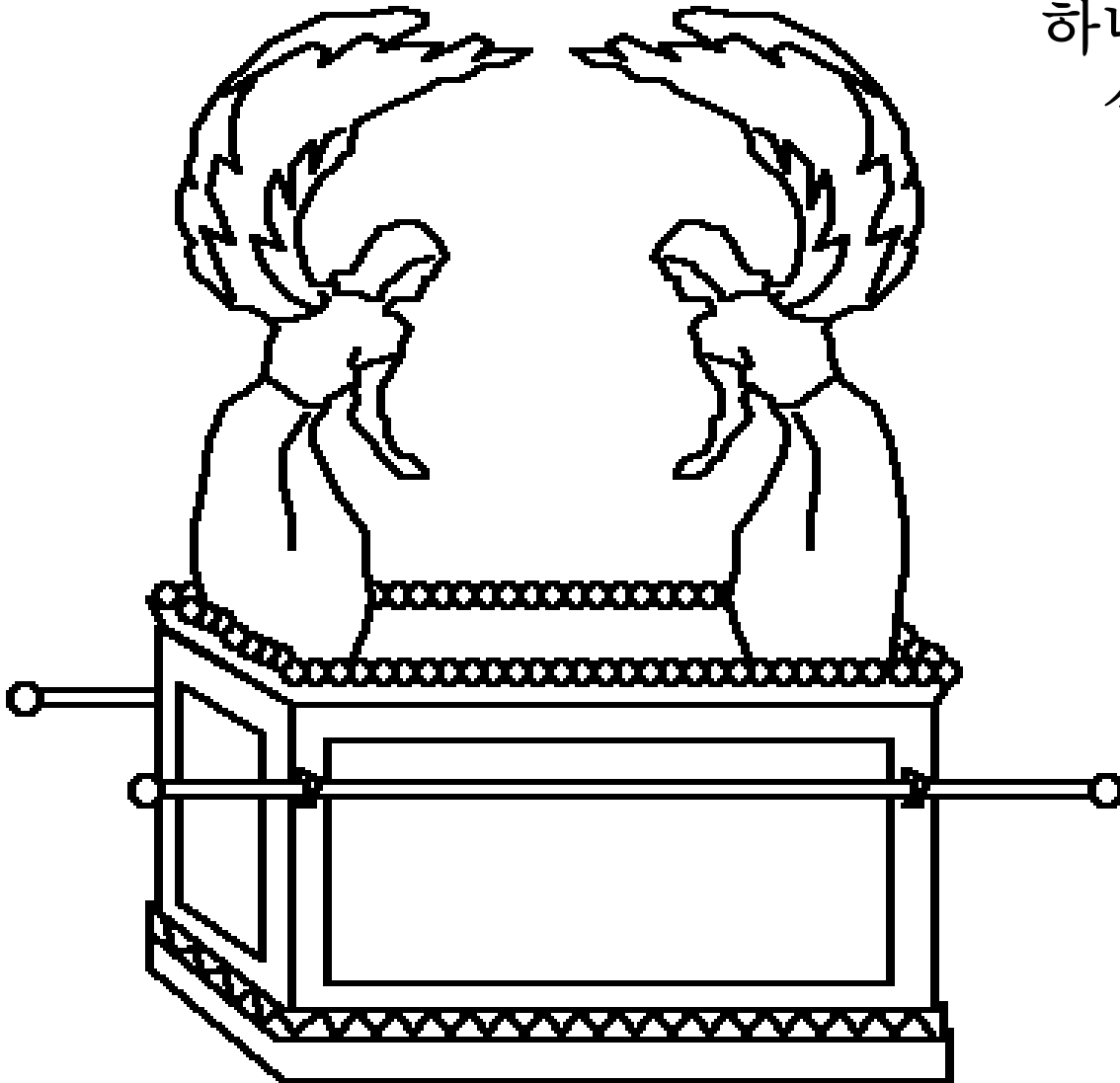
그런 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 왕이 처음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요새로 건축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의 군대는
팔레스타인과 다른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정복해 나갔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다른 법궤들이
들어 있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지혜로운
용사였고 겸손한 사람이였다.



법궤는 텐트에 있는
데 본인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은 이를
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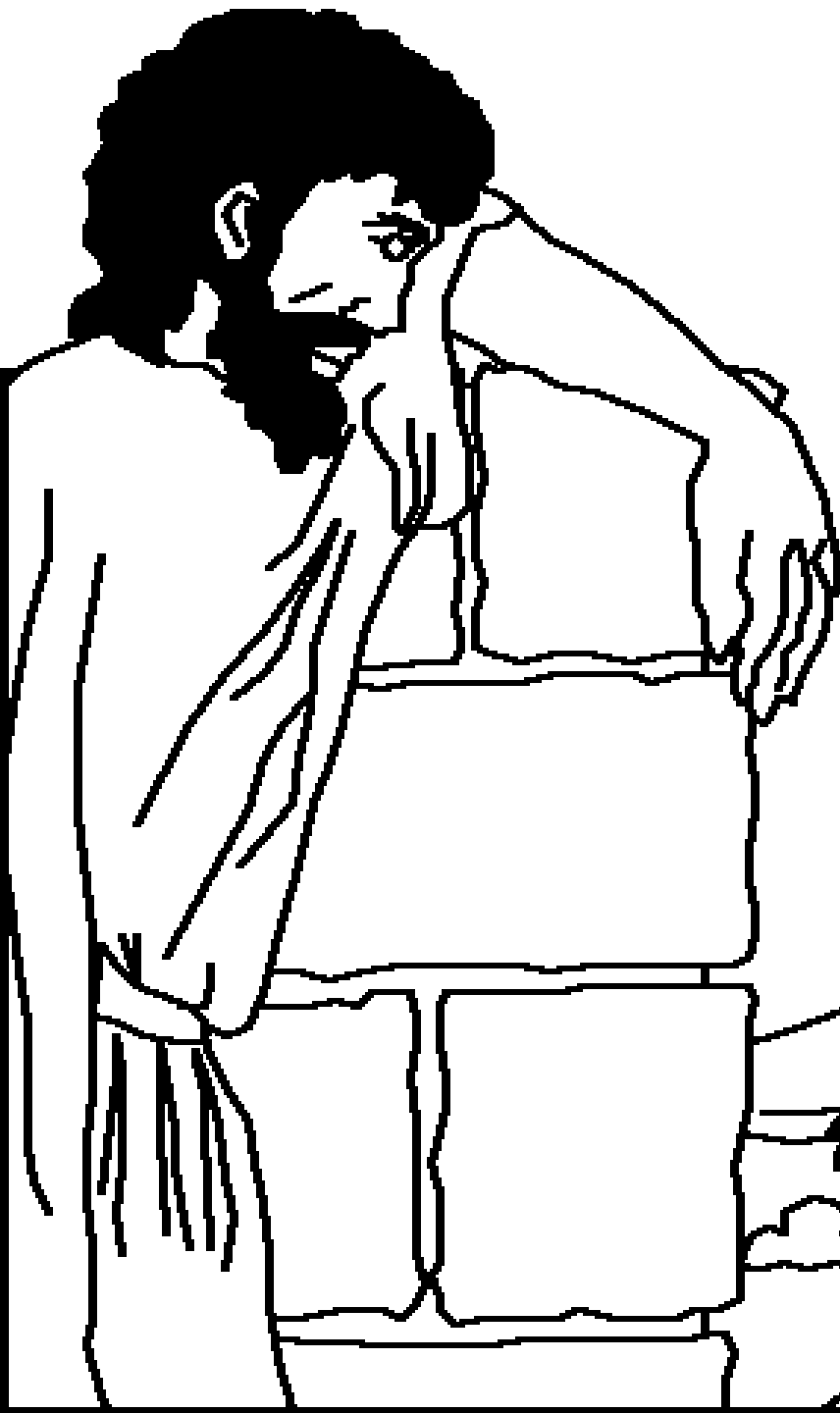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대대로 세울 것이다. 너의
사명이 끝나고 네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아들로
왕을 삼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의 왕위를 든든히 할 것이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자녀들을 돕고
싶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다. “그를 나의 자녀들과
함께 내 식탁에서 먹게 하라” 고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친절히 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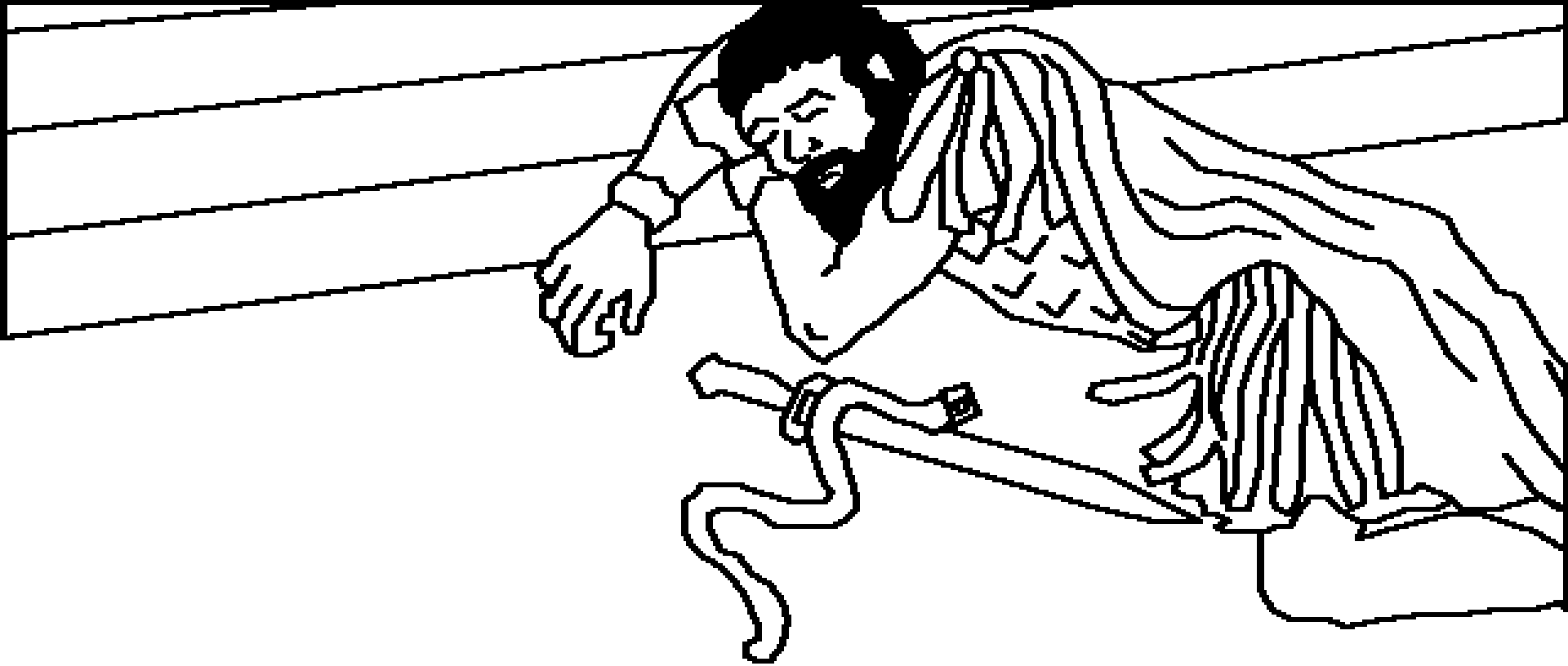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늘 성공하도록
도우셨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어느 날 밤, 잠을
뒤척이다가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내다보았다.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용감한 군사
중에 하나였다. 후에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다윗은 그의 범죄가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윗은 그의 죄를 숨기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 들였다.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궁전 문에서 잤다.



그래서 다윗은 더 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주어
전쟁터로 돌려 보냈다.
그 편지에는 군대
대장에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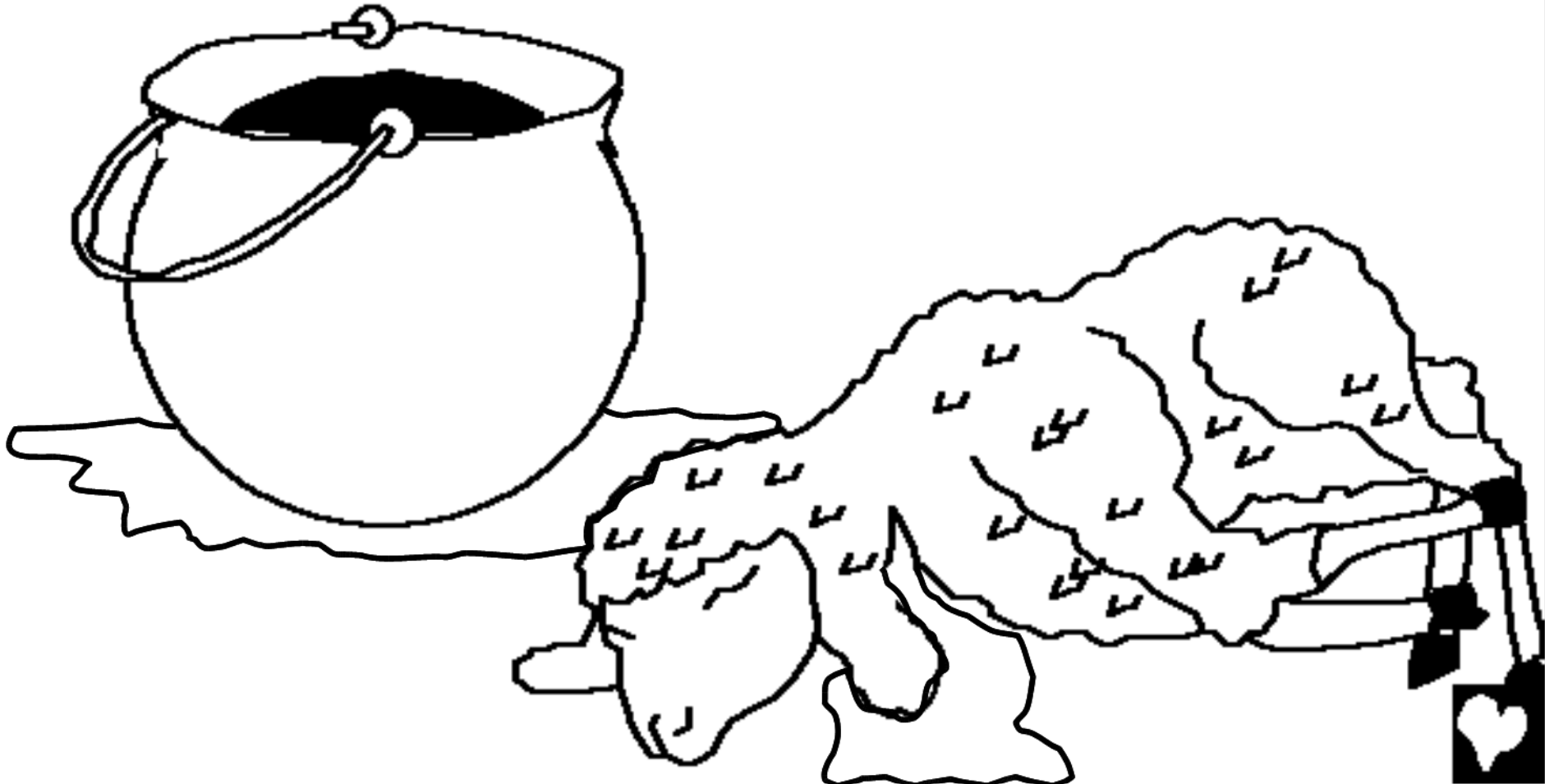




하나님은 그분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다.
나단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부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1마리의 양만 가지고
있었고 딸처럼 매우
귀하게 여겼다.



손님이 부자에게 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다.



다윗은 그 부자의 이기적인 행동에 화를 냈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소리쳤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용감히 말했다.
다윗은 그 부자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는지 보여 주셨다. 다윗은 뉘우쳤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악한 죄를 주님 앞에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밋세바의 아기는 아팠다.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후 밋세바는 또 아기를
가졌는 데, 그는 다윗을
이어 위대한 왕이 된
솔로몬이었다. 다윗왕은
솔로몬 이외에도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 어떤
자식은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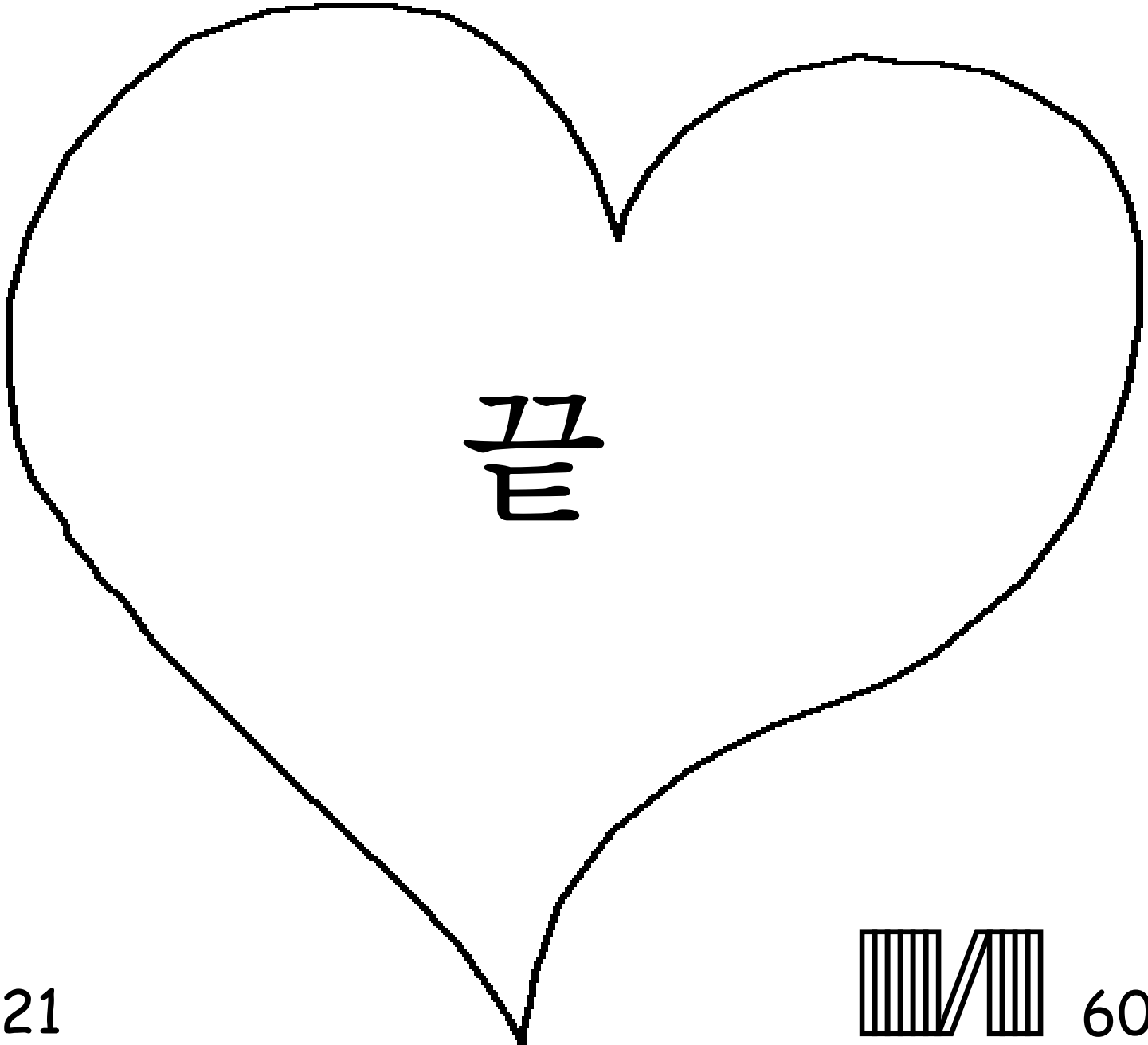
다윗왕 (2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 12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21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